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 연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 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마르코스 고메즈 주한 유럽상의 회장을 비롯한 외국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영상물을 통해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다양한 투자정보를 얻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더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더 큽니다. 동북아의 부상과 함께 세계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부산항·광양항 프로젝트를 국가전략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투자한다면 모든 면에서 만족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 모두에게 성공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자라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챙겨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단지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사관계에 대한 염려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호 신뢰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노사문화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 불법파업이나 시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노사분규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관한 한 지금 아주 안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규제와 차별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규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고치는 것은 물론 투자지원센터가 여러분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투자지원센터는 때때로 제가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2005년부터는 법인세도 2%포인트 인하할 것입니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일도 없게 하겠습니다. 편법과 뒷거래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하는 시장,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투명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 경제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한국은행, IMF 등 국내외 기관들도 내년에 우리 경제가 5% 이상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우량주의 경우는 50~60%를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IMF 외

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훨씬 강한 체질과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앞서 갈 수 있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구조와 규모가 조화롭고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시장의 개방과 투명성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창의성과 성실성, 위기관리능력을 두루 갖춘 인력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뒷받침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투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동북아 경제중심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투자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기업한다는 사실을 통해 여러분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부산항과 광양항은 지방에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사항으로 덧붙이면,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물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일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히 오늘 설명드린 사업은 반드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장애가 발생하면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